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소비자 대상 안전정보 및
소비자안전교육의 현황분석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이 유 경

아동소비자 대상 안전정보 및
소비자안전교육의 현황분석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이 유 경

인 준 서

이유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안전정보제공의 실태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안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소비자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은 현행법상 법률마다 정해진 연령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만 6세에서 12세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 시기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아동소비자안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에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에서 8.3명으로 줄었으나 OECD평균(7.3명)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손상위험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간, 국가 간 및 국내 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지역별, 국가별 차이 이외에도 인구집단 및 특정하위 그룹 간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함이 밝혀짐에 따라 사고에 대한 관점은 사고요인과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 보아야하며 이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차단시키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안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아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학습 사이트 ‘어린이 안전넷’이나 방문학습을 통해 직접 사건과 사고를 체험하며 안전학습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관’ 그 외에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 안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으며 아동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나 유형별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On-Off LINE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을 통한 아동소비자안전교육은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선택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미흡하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소비자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1) 의사결정과정 (2) 소비자정보 (3) 합리적인 소비 (4) 재무관리 (5) 가치선택 (6) 소비자시민의식 (7) 환경 보호적 소비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효과적인 아동안전소비자교육의 방법으로 (1) 매스미디어 활용방법 (2) 컴퓨터 활용방법 (3) 실물 활용방법 (4) 실험실습방법 (5) 조사기법 활용방법 (6) 사례연구 (7) 게임 (8)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9) 견학 및 지역 활동 참여의 9가지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제 7차 교육과정 영역별 소비자교육 추출표(이창수, 2007)를 통해 초등학교 3, 4, 5, 6학년 실과과정의 소비자교육의 영역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비자교육 영역별로는 소비자 의식 교육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소비 역할 교육에서의 소비자 문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소비자교육 내용은 4학년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고, 6학년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다.

셋째, 소비자 역할 교육이 부족하여 소비자로서의 누리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였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과 아이들의 체험 및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연계성과 통합성이 필요하며, 이에 맞게 교과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에서 소비자교육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 학년의 연계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통합적인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저학년에 맞추어 아이들이 활동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비

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소비자안전교육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소비자 안전교육 내용이 실제 소비생활과 연계되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교육에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내용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아동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안전지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아동안전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안전 계획에는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생활에 있어서 안전규칙, 재량활동에서의 안전지도와 같은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에 관한 교내 연수, 학부모 대상의 교내 연수,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같은 안전조직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론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교과내용의 재편성과 소비자안전교육 영역의 확대 그리고 가정과 학교, 기관과 지역사회간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앞으로 아동소비자교육의 목표라 하겠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아동소비자의 특성	
1. 아동소비자의 정의	5
2. 아동소비자의 특성	8
III. 아동소비자 안전 관련 법제도 고찰	12
IV. 아동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와 안전교육	
1. 아동안전사고 현황	16
2. 아동소비자 안전관련 소비자 안전정보	22
V. 아동소비자를 위한 안전교육 현황	
1. 아동소비자 교육의 주요 내용과 교육 방법	26
2.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	32
3. 아동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	41
VI. 결론 및 제언	48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법률상 연령(0~24세)에 따른 연령 구분	6
<표 2> 연령별 아동의 발달 특성	9
<표 3> 어린이 식품 안전 법	19
<표 4> 제 7차 교유과정 영역별 소비자교육 추출표	33
<표 5> 3-1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4
<표 6> 3-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5
<표 7> 4-1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6
<표 8> 4-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7
<표 9> 5-1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8
<표 10> 5-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9
<표 11> 6-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	39
<표 12>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실태 분석 결과	40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겪으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빠르고 편안한 세상 뒤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현실로 다가와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대량 생산과 대량판매,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소비자의 이름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방송매체에서도 ‘불만제로’나 ‘소비자 고발’과 같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송을 만들었고 이러한 소비자 관련 방송은 시청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생산 업체의 행태를 고발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소비자 의식을 한껏 고취 시켰다(이재용, 2010).

하지만 요즘처럼 복잡다양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하여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방송매체나 일회성 교육에 의존하기에는 교육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소비자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제품의 경제성과 안정성, 신뢰도 등을 따져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이 구입한 제품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아는 능력은 일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소비자교육은 일생의 전 과정을 거쳐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 여건의 향상과 자녀수의 감소, 관련 상품의 증가 등으로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은 ‘아동소비자’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우리나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갈 주체이기에 더욱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즉 아동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은 아동에게 소비에 관련된 지식과 태도, 행동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합리적 소

비자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소비자는 예전 부모님이나 성인을 통해서 이루어 졌던 소극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이 재화를 통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로서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분별력이나 인지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세계의 시장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는 아동이 미래의 소비자로만 여겨졌으나 오늘날은 실제로 구매활동에 참여하는 현재의 소비자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은 일찍부터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로 간주되어 왔고, 90년대 이후에는 성인 시장을 세분화를 하듯 아동시장 역시 세분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McNeal, 1992).

초기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인 행동 추구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가 경제체계에서 최대의 화폐가치를 획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 오하이오주 교육위원회(1970)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은 ‘사회의 공적 이익 안에서 개인과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원을 활용하고 최대 만족을 얻는데 필요한 기능, 개념, 이해를 개인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바있다. 더 나아가 IOCU(1978)는 상품과 상업서비스뿐만 아니라 광고서비스, 정부, 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정보화되고 비판적이며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적극적인 소비자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한다. 판매촉진 관행을 인식하고 일시적인 생활약식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한다. 대중매체가 제공한 것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해결 방법과 특정 상황에서 가

장 효과적인 행동을 생각해야한다. 넷째, 행동계획 및 수행을 배워야한다. 뿐만 시 불만원인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계획 및 예산수립,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훈련해야한다. 끝으로 학생들은 배운 기능과 지식을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인지적 기능 외에 소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므로 학생들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기와 같은 정서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소비자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제시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송순영(1993)은 아동소비자교육을 가치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의 인식부터 시작하여 가치판별 능력을 개발시키고 의사결정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주체적인 행동능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문제 발생 시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책임과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비판 의식과 행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았다.

그러므로 아동소비자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는 요즘 가정에서 다루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나 사회, 기업에서의 아동소비자교육 실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아동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그러한 노력을 실효성 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실제로 아동이 적극적으로 소비생활을 체험하거나 반성해볼 기회가 미미한 실정이다. 아동소비자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어려서부터의 소비생활은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 살림살이를 좌우할 것이므로, 아동의 소비행태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의 소비행태와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대진(1999)의 연구에서는 외제품을 1가지 이상 소유한 아동이 80%를 넘었으며 구매 시 충

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용돈의 사용처는 주로 군것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80%가까이가 소비생활을 부모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아동의 소비생활에 관심을 갖아야 하며 학교, 사회, 가정이 협력하여 소비자 교육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소비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한 후 소비자 관련 지침이나 정보가 얼마나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으며 학교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아동관련 소비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또 소비생활의 영역이 국가의 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는 어떠한 아동 소비자 관련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급히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아동소비자교육에 대한 조사와 현황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아동소비자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아동소비자교육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지식전달 체제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체험하거나 참여하는 소비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초등학교 실과 과정의 소비자교육 영역과 내용 재편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아동소비자 프로그램의 개발 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명시하고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맞춘 효과적인 학습법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동소비자의 특성

1. 아동소비자의 정의

안전한 아동의 소비생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비행태를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며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특이할만한지를 파악하여야만 보다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는 심신(心身)의 성장 발달기에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미성숙, 미완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한다. 심리적으로는 대체로 6세부터 12, 13세 까지를 즉, 초등학교 재학 중 및 그 전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면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영역을 연구하는 학자 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에서도 아동을 몇 살까지로 정해야 하느냐 하는 아동과 성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결코 일치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과 개별법상의 아동 및 그 유사개념을 비교하여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주를 정하도록 하겠다.

1)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

보편적으로 아동기는 6세부터 12세(이하 연령의 표기는 모두 만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까지로 출생 후 영·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13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이혜원, 2006).

유니세프(unicef)는 아동의 권리를 집대성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89년 제정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 협약의 제 1조에 따르면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범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나라별 어린이 사고통계를 0~14세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 받고 있으며 영미에서의 사전적인 어린이(Children)의 정의는 분별력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통 14세까지를 말한다. 2003년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연령은, 2004년까지는 0~14세까지였으나 2005년부터 15~17세가 추가되었다.

2) 법률상 아동의 개념

< 표 1 > 법률상 연령(0~24세)에 따른 연령 구분(김수진, 2005)

연령구분 해당법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동복지법	아 동												
청소년보호법	청 소 년												
민법	미 성 년 자												
소년법	소 년												
영·유아 보육법	영 유 아												
유아교육법			유 아										
도로교통법	유 아			어 린 이									
일반적	영 아	유 아			아 동 기								

(1) 아동

일반적인 분류에서 아동의 범주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여겨지듯이 법률상으로도 아동의 범주는 같은 나이이지만 다른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아동’이라는 이름의 정의를 명문화한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2조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유보하지 않고 비준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과 아동 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자로 그 범위가 같다.

(2) 유아·영아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로, 「도로교통법」 제 11조에서는 유아를 6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라고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모육법 시행규칙」 제 28조에서는 영아보육을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아는 3세 미만, 유아는 3세부터 6세미만의 아동으로 보고 있다.

(3) 어린이

우리는 아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린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에 대해 정의를 내린 규정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2조 21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규정하면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2006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의 정의에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이라고 하고 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보호용기를 정의하면서 ‘5세미만의 어린이가 여단을 수 없는 용기’라는 표현을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연령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아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와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의 연령 범위를 본다면 어린이는 13세미만의 자로서 18세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 아동보다는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소비자의 특성

1) 아동소비자의 발달적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인 간에 일정한 구분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범위확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이라고 불리는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초등학교까지의 아동은 청소년이라고 지칭되는 중·고등학생과는 다른 점이 있고 보호의 강도와 방향도 달라야 한다. 아동·청소년 중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정서적 차이가 뚜렷하고, 그에 다른 사회적·법적인 규제도 다르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거나 찾을 수도 있는 데 반해,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12세 이상이 되면 발달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의 특성보다는 성인기에 가

까운 신체적·지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표 2 > 연령별 아동의 발달 특성

		영아기 (출생~2세)	유아기 (2~6세)	아동기 (6~12세)	청소년기 (12~18세)
신체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신체성장 • 앉기... • 서기...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다리 성장 • 달리기,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지속적 성장 • 게임...스포츠 • 유연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성숙 • 활기...힘,건강 최고 수준
심리 적 발 달	인지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 개념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 • 언어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적 사고 • 사회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성숙 최고 수준
	정서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움... • 두려움, 분노, 자의식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통제 (충동조절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정...공격적 충동 억제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성 • 자율성 •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애착 • 신뢰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동(환경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화(학교) • 친구관계 형성 • 팀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족으로부터 독립 • 직업 준비

아동기를 아동 전기와 아동 후기로 나누어 볼 때 아동 전기는 만 2세말에서 만 5세까지이며 취학 전기 또는 학령 전기가 되며 아동 후기는 만 6세에서 만 12세로서 학령기이다. 따라서 아동 소비자는 만 2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소비자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아동의 신체적·지적 발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인이 생산자나 판매자와는 다른 개념의 소비자임을 인식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적절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아동의 범주를 보편적 관점 또 인지적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6세부터 만12세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며 따라서 만 6세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겠다.

2) 아동소비자의 소비 행태 특성

초등학교에서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에서는 교실과 교사가 넘

쳐나고 대학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학생들 때문에 신입생유치에 열을 올리지만 아동 관련 산업은 ‘키즈마켓’, ‘베이비 마켓’, ‘엔젤 마켓’ 등 관련 상품과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동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할 정도로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잠재적인 소비자시장으로 여겨지고 연구되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어린이에 대한 연구가 tv와 그 영향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어린이들의 소비자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조업자와 소매상 모두 어린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어린이 시장을 수익성이 높은 세분시장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Skippies(School aged kids with purchasing power)라는 새로운 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CHANDLER, 1999). 이러한 아동 시장의 특징과 아동 소비자의 특수성은 소비생활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아동과 소비생활에 대한 사회변화와 특성을 알아본다면(민정윤, 2002),

첫째,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계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핵가족화 및 자녀출산율의 저하로 가정에서의 자녀수가 감소되어 아동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아동에게 지급되는 용돈 량이 증가하여 아동소비자가 쓸 수 있는 자유재량소비액이 증가하였다.

둘째,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대중매체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상품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특히 아주 어린시기부터 접하는 텔레비전광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셋째, 아동소비자가 부모의 구매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가계 구매행동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어린이의 자기배어능력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행위는 쉽게 외부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숙한 의식이 없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소비나 상품구매 시 남의 소비행위를 참고하고 남의 소비방식을 모방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소비는 부모님, 반 친구, 선생님과 광고, 상가 등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반 친구의 영향은 어린이소비행위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

다섯째, 소비자 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여 소비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기회도 충분하기 못하다.

여섯째, 어린이 개개인의 기호, 선호, 개성, 감성이 예전에 비해 뚜렷해지면서 아동의 개성화가 상품선택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수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던 몰개성적인 구매자체가 사라지고 어린이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거나 어른의 제품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곱째, 부모의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어린 나이에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학교·사회와 접촉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의 자극에 접하게 되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갈등 속에서 과소비, 모방소비, 충동구매, 과소비 등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소비와 관련한 시장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고 어린이 소비자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을 통한 간접적인 선택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의 실시가 시급하다.

Ⅲ. 아동소비자 안전 관련 법제도 고찰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¹⁾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및 사업자의 책무(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8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많은 내용은 사실 제품의 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 소비자 안전에 관한 규정

소비자기본법은 제 4조에서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1) 「소비자기본법」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이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 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체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6년 9월 27일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이나 사용 또는 이용 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3. 아동 관련 제품안전예방에 관한 규정 신설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아동용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 제 4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상의 예방조치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산업 국가는 이미 「소비자 기본법」이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한편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국가가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이나 「제조물책임법」만으로는 헌법상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자의 과제는 제품의 안전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법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입법자의 구체적인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아동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의 경우를 관장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의 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고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도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법에서는 식품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어린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기까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환경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의 주요 식생활 공간인 학교와 학교주변 200m내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시. 군. 구 자치단체에서는 6,497개의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학부모 등을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보호구역 내 업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인천, 경기, 전남, 제주에 14개소가 지정되어있다.

특히 특별법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어린이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중 고열량, 저 영양 식품기준을 설정하여, 어린이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 및 주변의 우수판매 업소에서 만큼은 이들 식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고열량, 저 영양 식품 자동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품목록 DB를 마련하고 있으며 업체로 하여금 고열량, 저 영양 식품의 생산을 저감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정서저해식품 및 저가식품의 관리,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 장난감 등 미끼상품 제공으로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 금지 등도 건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또한 식생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식품을 선택,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교, 지자체 등에서 어린이의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맞는 식품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표 3 > 어린이 식품 안전 법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급식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5조) • 학교주변‘우수판매업소’지정(7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고열량, 저열량 식품기준마련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8조) • 광고의 제한,금지(10조)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권장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성분의함량색상모양표시(12조)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품질인증표시(14조)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의무(11조)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제13조)

소비자를 위한 식생활정보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V. 아동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와 안전교육

1. 아동안전사고 현황

1) 아동안전사고 현황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 (5.2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3년 6월에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사망률은 8.3명으로 줄어들었으나 OECD 평균(7.3명)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곽숙영, 2006).

이와 관련하여 Roberts 외의 연구(1996)에 따르면 손상위험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간, 국가 간 및 국내 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지역별, 국가별 차이 이외에도 인구집단 및 특정하위 그룹 간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빈곤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손상 및 폭력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혜숙 외, 2006).

또한 근래의 사고에 대한 관점은 사고요인과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차단시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사고는 손상을 유발하며,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집단에서 고위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병예방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능한 보건학적 문제라는 인식이다(송현중,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안전사고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예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식품 안전사고

식품안전사고란 식품, 안전, 사고의 합성어로 각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하고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윤주한, 김시권, 2006).

안전이란 표준어국어대사전상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혹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위해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존재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WTO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안전은 식품의 원료인 농수산물의 재배, 수확, 저장, 제조(가공)를 포함하는 생산단계를 비롯하여 유통과 판매를 거쳐서 조리하고 섭취하는 소비 전 과정을 포함하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종용, 2005).

식품산업이 발달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끊임없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지파동(1989), 콩나물 농약오염사건(1990), 고름우유사건(1995),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1998)에 이어 2000년 이후 최근에도 식품안전사고는 계속발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는 사업자의 고의적 첨가에 의한 사건인 납꽃게 사건(2000), 불량만두소 사건(2004), 표백된 찌쌀(2004)과 우리나라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품인 김치와 어린 자녀가 섭취하는 분유에서 발생한 납과 기생충알 김치 사건(2005), 분유 사카자키균 발생사건(2006) 등이 있다.

아동기는 인간의 발달과정 중 성장발육이 왕성하여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식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다. 또한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라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정립되는 등 정신적 발달도 아울러 이루어진다(안홍석, 1994). 그러나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식품선택에 있어 올바른 판단 없이 기호성에 편식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한혜영, 1997).

현대 산업의 발달로 많은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이 범람하고 있다. 식품첨가제로 이용되는 것들 중에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기초식품에 자주 사용되는 정제된 당분, 가공 향, 인공색소 등은 주의 집중과 인내력을 약화시키고, 충동적이고 흥분적인 성향을 띠게 한다. 그러므로 첨가제는 일정한 양만 넣고,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전세경, 2001).

아동기 식생활로 인한 성장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평생 동안 지속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영양에 관한 지식을 잘 교육하여 조기에 올바른 식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영양지식은 가정으로 파급되어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행위변화를 촉진할 수 있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효과가 크고 결과에 따른 반복 교육이 쉽고, 단체급식의 현장 지도를 통하여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김정균, 1989).

3) 아동용품 안전사고

성인들의 안전사고가 주로 산업재해에서 비롯된 것임에 비해 아동의 안전사고의 특징은 불완전하고 부적합한 소비제품·시설물과 아동의 특징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 200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조사결과 사고원인 품목의 23.4%는 장난감, 인라인, 키포드 등의 스포츠·놀이용품으로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검사 대상품목이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놀이용품 중에서 안

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47.5%로 이러한 용품들은 최소한의 주의규정 없이 영세업체를 통해 취급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 2006). 아동용품이라고 하면 아동에게 사용되거나 아동이 직접 이용하는 용품들을 말하며 여기서 다룰 용품이라는 것은 놀이용품이나 놀이기구와 같은 공산품이 주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 생산과 관련된 아동용품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위해사례는 2006년 239건, 2007년 367건, 2008년 57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6%, 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위해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전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로 조립식 제품을 구입한 경우(49명) 대부분 구매자가 직접 조립(40명, 81.6%)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대다수가(447명, 89.4%) 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자전거 관련 소비자불만(최근 3년 8개월간 1,218건)은 품질·A/S 불만이 62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자전거 도로 지상물을 단속, 강화,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를, 기술표준원에 조립자전거 안전점검 표시사항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7년 하반기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청, 대구, 광주 지역 아동 303명과 학부모 497명

을 대상으로 아동용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한 학부모들 가운데 68.2%인 339명이 아동용품을 사용하던 자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의 경우에는 응답자 303명 가운데 53.7%인 163명이 아동용품을 사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아동용품은 완구, 학용품, 이륜자전거, 아동 액세서리, 운동용 안전모, 안전섬유제품 등6가지였다.

한편, 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안전인증(KPS) 마크에 대한 인식도도 낮아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인증(KPS) 마크를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동의 54.8%인 166명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전인증(KPS)마크가 있어야 구입한다는 아동은 전체의 21.2%에 그쳤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확인한다'(40%)와 '용품에 따라 확인한다'(33.6%)는 응답이 '확인하지 않는다'(2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아동안전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는 아동의 60.7%, 학부모의 59.8%가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답했다.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8%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술표준원 측은 "소비자들이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출시되는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아동용품과 관련한 안전정보나 지침 시급히 개선하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을 고를 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화장품 시장의 경우 기초와 색조화장품을 포함하여 성이 규모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성인 화장품 시장을 대략 5조원으로 본다면, 아동 화장품은 약 1조 5,000억 원 정도의 규모라 할 수 있다. 최근 아동 전

용 화장품 브랜드가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중 색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정도라고 얘기 될 정도이다(이지연, 2006). 요즈음 초등학교 문방구에서는形形色색의 예쁜 화장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31개의 아동 화장품을 조사해 본 결과 27개 제품이 제조업자 및 제조 년 월일, 용량,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같은 양의 성분이라도 몸으로 흡수되어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금속처럼 배출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 아동소비자 안전관련 소비자안전정보

1)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아동소비자안전정보는 만 6세부터 만12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아동안전은 협의로는 아동이 신체적 상해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부터도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안전 정보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보이며, 아동이 소비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요령을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① 어린이 안전넷

정부에서는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사고를 200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

여 아동안전수준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아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안전넷”은 아동안전 종합 정보망으로서 아동이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꾸며 놓아 아동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정보를 연람하도록 자료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아동이 직접 사이트를 찾아가 정보를 검색해야만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교육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② 어린이 안전교육관

어린이 안전 교육관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종합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방문한 아동은 영상반, 가정안전반, 교통안전반, 신변안전반, 승강기 안전반 등의 주제로 꾸며진 가상의 현실 속에서 직접 사건과 사고를 체험하며 안전학습을 받을 수 있다. 6, 7세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체험식 안전교육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종합안전교육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소비와 관련된 안전교육프로그램 또한 갖추고 있다. 단체관람은 10인 이상 가능하며 교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③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시민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시민의 힘으로 예방하자는 취지하에 결성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아동 소비에 대한 안전정보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첫째, 실천 가능한 생활안전 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전문가에 의한 안전정책 검토, 제안을 통한 안

전정책을 생점화 한다. 셋째,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홍보, 계몽, 신고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세 가지 목적을 슬로건으로 하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제공하는 ‘안전뉴스’에 의하면 아동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경험 이 있는 아동은 70%에 달한다고 한다. 생활안전聯, 학용품, 완구 등 사용빈도 높은 6개 품목의 안전사고 조사결과 제품을 살 때 ‘안전’마크 확인하는 아동 절반에 그쳐 안전 눈높이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경기, 춘천, 대구, 광주 지역 아동 303명과 학부모 497명(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310명, 7세 이하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187명)을 대상으로 6개 아동용품(완구, 학용품, 이륜자전거, 아동 액세서리, 운동용 안전모, 안전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학부모들 가운데 68.2%인 339명이 아동용품을 사용하던 자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의 경우에는 총 응답자 303명 가운데 53.7%인 163명이 아동용품을 사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술표준원이 석우연구관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아동의 비율이 학부모에 비해 적게 나온 것은 아동의 경우 안전사고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뉴스와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고 등곳길 ‘위킹스쿨버스’와 같은 캠페인 운동과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④ 세이프키즈코리아

세이프키즈월드와이드의 한국법인으로 2001년 2월 창립되어 교통, 학교, 놀이, 스포츠, 물놀이, 화재, 공공장소, 응급처치, 전기, 가스, 식품, 약물 등과 관련한 아동 안전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안전 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한국 아동 안전사고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 교육장에서의 아동 안전교육과 체험 실습을 실시하며 아동 소비 생활과 관련한 안전교육의 의무화와 안전기준의 강화, 법적효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자료수집 및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협조의 역할도 한다.

⑤ 어린이 안전학교

2008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동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유형별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아동과 선생님,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On-Off LINE상 아동 안전교육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아동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실습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2009년 어린이 안전학교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다. 아동안전사고 사망사례와 중상 이상의 사고사례를 수집하고 각 안전사고 유형과 사고 특성 등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 선생님, 부모님 측면에서 각각의 아동 안전사고 예방법을 도출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아동안전학교를 구축하고 사업에 활용한다. 인터

넷 상에서 아동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유형별 사고 특성, 사고예방법을 담은 13개 아동안전교실을 구축한 후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아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프랑스식 아동안전교육 예비인증원을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아동안전학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아동안전학교 졸업장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교육 지도사를 양성하고 사업에 활용한다. 초등학교, 유치원을 순회하며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아동 안전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우리지역의 아동안전사고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민간 자격증 제공을 예정하고 있다.

다섯째, 「어린이 안전학교」 건설 준비 사업을 실시한다.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 교육을 실시할 어린이안전체험 교육센터의 설립을 준비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학교는 교통안전교실, 학교안전교실, 가정안전교실, 수상안전교실, 화재안전교실, 전기안전교실, 가스안전교실, 재난예방교실, 응급조치교실, 질식/중독예방교실, 승강기안전교실, 유괴/미아예방교실, 놀이안전교실, 성폭력예방교실, 사이버안전교육교실의 총 15개의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장 현실을 체험하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V. 아동소비자를 위한 안전교육 현황

1. 아동소비자교육의 주요 내용과 교육 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연령 특

성에 맞는 내용의 편성과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의무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내용의 구성과 효과적인 전달과정이 필요하다. 아동소비자교육의 중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소비자교육의 주요 내용

(1) 의사결정과정

오늘날 소비자는 거의 매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또는 자신과 관련된 타인을 위해 소비를 위한 선택을 하며 선택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선택한 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즉, 문제의 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의사결정과 선택, 구매 후의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 소비자정보

의사결정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보의 소유 여부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 하겠다. 소비자 행동의 기본적인 사항은 동기, 지각, 학습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 측정되며, 이러한 가치관이 구매행동과 연결되는 것이다(김원수, 1981).

아동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반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구매행동의 경향이 성인 소비자보다 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의 구매행동에는 학습, 기억, 이미지, 습관, 권유 충동, 유행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특히 과거의 경험, 매스미디어(특히 tv)의 광고를 통한 제품에 대한 기대, 욕구의 수준, 경쟁심리 등의 심리적인 변수의 영향이 크

다.

아동소비자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런 아동의 정보 탐색과정에 유념하여 소비자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바르고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근거하여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원이 가진 자원, 즉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있어야 하고, 한정된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무관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소득과 지출을 맞추는데 필요한 알뜰쇼핑 요령이나 가계부 기록 등과 같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무관리와 관련된 지식은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제약하는 경제자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생활설계, 필요자원의 예측 등 장기적인 재무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5) 가치선택

아동소비자들이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활동에서 느끼는 만족은 소비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소비 소비만이 만족을 제공한다는 소비의 효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6) 소비자시민의식

소비자 문제의 대부분은 약자인 소비자와 강자인 기업과의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들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나 하나쯤은 하는 의식을 벗어나고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7) 환경 보호적 소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소비행동에 관한 결정이 천연자원이나 교통, 생산, 금융 등 많은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자원 고갈문제, 환경오염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아동안전소비자교육의 방법

(1) 매스미디어 활용방법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는 소비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육 자료이며 동시에 중요한 소비자정보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을 키우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소비자 교육이다.

(2) 컴퓨터 활용방법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교육방법의 하나로 실제로 특정 재화를 판매하는 상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통해 재화의 가격을 알고 제품의 후기를 살펴보면 재화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구매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실제의 재화를 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화면상의 물건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과장된 광고나 다른 사

람의 의견에 쉽게 동조되어 충동구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구매활동을 교육할 때에 함께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실물 활용방법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사용설명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실물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아동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직접 구매한 상품의 설명서나 계약서등을 가지고 와서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약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며 아동의 참여를 높이고 소비자의식의 동기를 높이는 교육 방법이다.

실물 활용방법에는 수입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예전에 구매한 불량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좋은 활용의 예이다.

(4) 실험실습방법

실험실습방법은 실물활용방법과 같이 소비자교육에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방부제가 든 음료수와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의 뚜껑을 열고 그 부패과정을 살펴보거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세탁비누를 만들어 보는 것 같은 소비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 직접 경험하며 실습을 하면 소비자 교육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5) 조사기법 활용방법

가령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소비자가 시장가격을 직접 조사하게 하고 조사된 가격을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출하량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설명하게 하는 것은 조사기법의 소비자교육으로 가격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아동에게 생산자의 입장에서 물품의 가격을 매기는 역할을 대신

해 보며 적절한 재화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6) 사례연구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겪은 소비자 생활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거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며 소비자 의식을 고취시킨다.

(7) 게임

연령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서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재미와 흥미를 가미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환경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퀴즈형식의 게임으로 교육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다.

(8)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다양한 구매 상황을 설정하고 소비자와 판매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상거래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행위의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9) 견학 및 지역 활동 참여

견학과 지역 활동 참여는 소비자가 직접 보고 듣고 행하므로 소비자가 관련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람하거나 인근 산이나 하천의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2.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

1) 학생 안전교육 개념

안전이란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는 ‘평안하며 위험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교육은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편안해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Marland(1973)는 안전을 ‘인간의 행동 수정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안전교육이란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안전교육에 관한 개념 속에는 이러한 예방적인 교육의 의미가 강조됨을 볼 수 있다. 즉 안전교육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해시키는 지식의 교육,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신중히 행동하는 태도의 교육,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의 교육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사고와 재해의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현재와 미래에 걸친 자신의 심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능력과 태도도 기르게 된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기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초등학교 교과서 소비자교육 실태분석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환경 확대법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인지발달구조에 맞추어 사회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소비자교육 또한 환경 확대법의 논리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송순영, 2001).

< 표 4 > 제 7차 교육과정 영역별 소비자교육 추출표 (이창수, 2007)

영역 학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물자이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원과 생산 • 물자유통과 상호의존 • 지역사회의 문제와 해결 • 우리지역의 미래 • 다양해지는 가정생활 • 취미와 여가생활 • 가정의 살림살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의 이용과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정보화시대의 산업 활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 지구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소비자의식 영역은 2학년부터 다루어지는데 4학년과 6학년에서 절반 이상이 다루어진다. 금전 관리와 구매 영역은 전 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특히 4

학년과 5학년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개인 및 공공자원의 사용 영역은 전 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저(1-3)학년에서 다루어지는 정도가 높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영역도 전 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고(4-6)학년에서 다루어지는 정도가 높다(김영옥, 1999).

< 표 5 > 3-1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 분석(이창수, 2007)

소비자 교육영역	단원 및 제재	지도 내용
경제개념 (5p)	2. 우리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2)편리한 고장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조사 • 시장: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매 장소 • 우리고장의 산업
소비문화 (2p) 경제개념 (6p) 선택과정 (2p)	3.고장생활중심지 (1)시장과 우리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필요한 것 •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곳:가게, 시장, 우유의 유통과정. • 시장의 종류:재래시장,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시장, 인터넷 • 시장에서 파는 물건: 물건을 파는 까닭, 생선 가게놀이(생선 값을 흥정, 물건 값 지불방법) <선택학습> • 시장주변 관찰(시장의 구실)
선택과정 (6p)	(2) 이어주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까지 가는 교통수단: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자가용, 선박 <단원정리학습> • 신발을 살 때 시장의 장점: 재래시장, 백화점, 통신판매

제 7차 교육과정 영역별 소비자교육 실시현황을 볼 때 아동소비자교육은 3학년에 시작이 되어 환경 관련 권리와 책임, 개인자원의 사용,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오늘날의 소비사회에서 보다 더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식, 구매 및 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소비자교육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개념 영역은 3학년에서만 1쪽이 다루어질 뿐이고 그 외 학년에는는 아주 적게 다루어서 절대량이 적다. 아동소

비자교육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매자로서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소비자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표 6 > 3-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 분석(이창수, 2007)

소비자 교육영역	단원 및 제재	지도 내용
경제개념 (5p)	2. 우리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2)편리한 고장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조사 • 시장: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매 장소 • 우리고장의 산업
소비문화 (2p) 경제개념 (6p) 선택과정 (2p)	3.고장생활중심지 (1)시장과 우리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필요한 것 •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곳:가게, 시장, 우유의 유통과정. • 시장의 종류:재래시장,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시장, 인터넷 • 시장에서 파는 물건: 물건을 파는 까닭, 생선 가게놀이(생선 값을 흥정, 물건 값 지불방법) <p><선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주변 관찰(시장의 구실)
선택과정 (6p)	(2) 이어주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까지 가는 교통수단: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자가용, 선박 <p><단원정리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을 살 때 시장의 장점: 재래시장, 백화점, 통신판매

3학년에서는 주로 경제생활과 시장의 역할에 대해 소비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환경 관련 권리와 책임, 개인자원의 사용, 공공시설의 이용 영역들의 기술된 내용은 반복적이고, 욕구와 희소성, 광고, 소비자문제와 해결과정 영역의 내용은 고학년부터 다루어진다는 도입시기의 문제점을 지니다.

< 표 7 > 4-1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이창수, 2007)

소비자 교육영역	단원 및 제재	지도 내용
소비자제품 정보 자원 사용	2. 우리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1)우리시도의 자원과 생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상품 고르기 • 특산물 계승 노력 • 세계 속의 우리 상품 (우리 상품의 품평회, 세계 속의 우리 기업) • 수출과 수입품 (수출품과 지역의 자원과 관계, 특화상품) • 공공시설 (우리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조사) <p><선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 조사하기
경제개념 선택결정 소비자제품 정보 자원사용	(2)서로 돕는 경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활동에 나타난 분업 • 물건교환놀이 (화폐를 사용할 때 편리한 점 토의) • 시장의 중요성 (시장의 종류 조사) (지역의 주요 시장 조사) (재미있는 시장 놀이) • 물건의 생산지 파악 • 다양한 물건들의 유통과정 조사 • 물건의 생산지 특징 및 유통과정 파악 <p><선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유통과정 알아보기, 싸게 사는 방법 • 농수산물의 직접구매가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역할놀이) <p><단원 정리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미의 유통과정설명 • 고장에 필요한 공공시설 • 유통의 단계에 따른 물건 값

< 표 8 > 4-2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이창수, 2007)

<p>소비자의식</p>	<p>3.가정의 경제생활 (1)다양한 생 산 활 동 과 의사결정 경제개념 가정의 소득과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고 싶은 물건을 모두 가질 수 없는 까닭 (무한한 욕망과 한정된 자원) • 물건을 살 때의 선택과정과 선택기준 • 가정에서 물건을 살 때의 현명한 선택(역할놀이) • 현명한 선택의 적용 • 생산활동 • 가정의 소득: 일의 소득과 관계, 이자소득 • 소득과 생산의 관계: 미래의 생산활동 상상
<p>소비윤리 금전관리 선택과정 저축과신용 경제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지출의 종류 (가계부, 가정지출의 유목화) • 합리적인 가계 운영방법: 소득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합리적인 지출의 선택 기준 정하기 • 개인 용돈의 수입과 지출내용: 용돈기입장 살펴보기 • 용돈관리태도의 반성 • 가계 및 개인 경제생활의 합리적 운영: 누가 누가 합리적인가 전시회 꾸미기 • 은행이 하는 일: 견학 (컴퓨터를 통한 은행의 업무) • 예금의 종류와 필요성: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농협, 투자신탁회사, 신용협동 조합, 새마을 금고, 우체국, 증권회사, 보험회사 • 저축 실천 방법 찾아보기: 예금할 돈 마련하는 방법 생각해보기 <선택 학습> • 1000원의 가치 • 용돈기입장을 통하여 절약하는 방법 찾기 <단원정리학습> 합리적인 소비와 가정 경제의 관계: 지나친 절약과 낭비의 문제점

4학년의 소비자교육은 경제개념, 금전관리, 저축신용, 자원관리와 같은 자원관리교육과 선택과정, 소비자 제품정보와 같은 의사결정교육 이 두 상위요소에 내용이 치중되어 있다. 소비자 안전이나 소비자 참여와 같은 소비자역할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건전한 소비자의식을 지니고, 소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아동소비자를 육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내용이 구성 및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표 9 > 5-1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이창수, 2007)

소비자 교육영역	단원 제재	지도내용
<5-1> 환경보호 소비자 참여 자원사용	3.환경보전과 국토개발 (2)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의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폐자원재활용) • 환경문제의 민주적 해결방법 • 환경기초 시설 설치를 위한 갈등: 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법 찾기 <단원정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을 낭비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고칠 점 찾기(가정, 학교, 공공시설)

5학년의 소비자교육 또한 4학년의 소비자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원관리교육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영옥(1999)은 앞으로의 아동소비자 교육 내용이 구성 측면에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 내용영역들 간의 구성 비율이 변화되어야 하고 구매자로서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 특히 아동이 겪는 소비욕구, 친구의 소비 또는 광고와 관련된 심리적 갈등을 저학년에서 보다 더 다루어야 한다.

< 표 10 > 5-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이창수, 2007)

<p>경제개념 소비윤리 소비문화 선택과정 환경보호 소비윤리 소비자 제품 정보</p>	<p>1.우리나라의 경제성장 (1)우리나라 경제생활의 특징 (2)세계로 뻗어가는 우리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이 늘어나게 된 까닭 • 자유와 경제의 사례 찾아보기 (직업선택, 상점 간, 생산자의 경쟁) • 우리 경제의 발자취 (생활 모습의 변화, 변화된 우리 경제 생활) •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해온 과정 (산업의 종류, 공업, 농수산업의 발달)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근로자, 가정, 기업, 정부 <p><선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종류 • 내가 사장이라면 • 경제 성장 사례 이야기 해보기
<p>소비자 제품정보 소비문화 소비윤리</p>	<p>2.정보화시대의 생활과 산업 (1)정보시대의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얻는 수단의 변화이해 • 정보를 얻을 때 주의할 점 • 소비자 및 기업의 정보 활용 • 초고속 정보 통신망 • 정보화 사회에서의 우리생활 모습 변화:인터넷 서점, 예매 <p><선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

< 표 11 > 6-2 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실태분석(이창수, 2007)

<p>소 비 자 참여</p>	<p>1.우리나라의 민주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참여활동 소비자 단체: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 원,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
<p>환경보호</p>	<p>2.함께 살아가는 세계 (2)지구촌 속의 우리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 • 지구의 환경재난 •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의 사랑의 동전 모으기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소비자학적인 사고방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과정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 측면에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욕구와 희소성, 광고, 소비자문제

와 해결과정이 저학년에서 도입되어야하고, 소비자교육을 다루는 주요과목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강화가 이루어져 소비자교육의 중심점이 될 과목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표 12 >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실태 분석 결과(이창수, 2007)

요소 학년	소비자교육요소													
	소비자의식 교육			자원관리교육				의사결정교육			소비역할교육			
	소 비 윤 리	소 비 문 화	환 경 보 호	경 제 개 념	금 전 관 리	저 축 신 용	자 원 관 리	선 택 과 정	소 비 자 제 품 정 보	구 매 후 평 가	안 전 권 리	소 비 자 책 임	소 비 자 참 여	소 비 자 보 호
3학 년		○		○			○	○					○	
4학 년	○			○	○	○	○	○	○					
5학 년	○	○	○	○			○	○	○					
6학 년			○										○	

우리나라에서도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목에 안전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확대해왔지만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교육부차원에서 안전교육을 30시간 정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작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에서 학교안전교육실시조항을 만들어서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에서 안전교육 실시는 이제 의무사항이다.

위의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학년별 소비자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교육 영역별로는 소비자 의식 교육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소비 역할 교육에서의 소비자 문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소비자교육 내용은 4학년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고, 6학년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다. 고학년이 될수록 합리적인 소비 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4학년에 집중되니 생기는 결과로써 결국,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역할 교육이 부족하여 소비자로서의 누리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였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과 아이들의 체험 및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연계성과 통합성이 필요하며, 이에 맞게 교과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에서 소비자교육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 학년의 연계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통합적인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저학년에 맞추어 아이들이 활동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아동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

1)미국

(1) 아동을 위한 안전한 식품 선택 프로그램

2007년부터 미국 식약청(FDA)에서 제공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Spot the Block"은 아동이 음식을 선택하기 전에 그 식품의 영양 성분에 대한 표시를 살펴보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음식물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

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DA는 "Time Warner's Cartoon Network"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홈페이지에는 FDA/Cartoon Network이 제공하는 음식물 성분 표시에 대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을 링크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의 아동안전지침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AARP(미국 퇴직자협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나이에 따른 표식라벨(age labels)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CPSC와 AARP는 공동으로 휴가철(holiday season)에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요소 5가지의 주의를 경고하며, 휴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안전지침을 만들었다. CPSC의 낸시 노드(Nancy Nord)부회장은 2006년 12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AARP재단과 함께 "장난감 안전"에 관한 회의를 갖었는데, 낸시 노드 부회장은 많은 손자손녀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50대 이상의 미국 노년층을 대표하는 미국 퇴직자 협회 AARP가 장난감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공동으로 어린이의 상해나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난감 안전지침(top toy safety tips)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CPSC에서 발표한 장난감에 대한 2006년도 최고 안전 구매가이드(Top Safe Shopping Tips)이다.

- ① 자석(Magnets): 6세 이하의 아동은 작은 자석으로 빌딩 쌓기를 하는 놀이는 피하도록 한다. 만일 이것을 삼키게 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 ② 작은 부품들(Small Parts): 3세 이하의 아동은 작은 부품의 장난감은 피

하도록 한다. 이것은 질식의 위험이 있다.

- ③ 타는 놀이(Ride-on Toys):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타는 놀이 기구는 빨리 움직이고 넘어질 우려가 높는데 이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반드시 헬멧이나 안전 보호대를 사이즈에 맞게 착용하여야 한다.
- ④ 발사형 장난감(Projectile Toys): 항공 로켓트, 다트(darts, 던지는 화살)와 고무줄 총 같은 발사형 장난감은 연령대가 높은 아동용이다. 이런 유의 장난감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아동이 가지고 놀다가는 심각한 눈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⑤ 충전기 및 어댑터(Chargers and Adapters): 배터리 충전은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는 충전기와 어댑터를 다루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CPSC는 적절히 아동용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⑥ 라벨 읽기. 나이를 고려한 안전지침이 있는 장난감 라벨을 찾아볼 것.
- ⑦ 나이와 능력 그리고 다루는 기술과 아동의 관심 수준에 합당한 장난감 고르기. 눈, 코에 꼭 맞고 다른 작은 부품들도 견고한 가에 대한 장난감 경고성을 살펴보기.
- ⑧ 8세 이하의 아동은 날카롭거나 뽀족한 면이 있는 장난감은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단 선물을 개봉하면,

- ⑨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은 즉시 버린다. 장난감에 싸여져 있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놀다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⑩ 다소 나이가 있는 아이에게 적합한 장난감은 너무 나이가 어린 영아의 형제자매나 이웃에서 놀러온 영아들 곁에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한다.

⑪ 충전 배터리가 들어 있는 장난감의 사용법이나 경고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부 충전기는 과열 방지를 위해 제품에 빠져 있기도 하다.

CPSC는 2005년에 15세 이하의 아동이 장난감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례가 20건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중 9건의 사망사고는 조그마한 불이나 작은 장난감 부품을 삼키거나 빨아들이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또한 2005년에 15세 이하의 아동 약 152,400명이 장난감과 관련하여 미국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의 대부분이 리콜제품이나 위험한 제품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타는 놀이(riding toys)기구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일어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7월 ‘식교육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3월 ‘식생활교육(食育)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이 국민 건강의 저하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생활수준이 높고 먹을 것이 풍부한 국가이나, 최근 지방질의 과잉 섭취, 채소섭취 부족, 아침식사 거르기 등 식생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만과 생활 습관병(만성퇴행성 질환)뿐 아니라 과도한 저체중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식육 추진 기본 계획은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추진을 통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심신과 인간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은미, 2006). 여기서 ‘식육’이란 식품과 영양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일컬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은 ‘食’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食’ 선택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를 기존의 3대 목표인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에 더해 식육(食育)을 더하여 지덕체식의 4대 목표로 규정하여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3) 영국

2008년 1월 영국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Cooking Lesson을 의무화하였고,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의 건강 식생활 교육은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에 걸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1월 영국 정부는 늘어나는 아동 및 성인의 비만 퇴치를 위해 11~14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학교에서 Cooking Lesson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하였다(<http://www.defs.gov.uk>). 이 정책은 아동이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간단한 조리법을 통해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본받아야 할 내용이다. 영국의 비만 율은 지난 25년간 400% 증가하였고 현재 성인의 4분의 3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비만이면 40%의 아동이 비만인 성인으로 성장하며, 부모 모두가 비만이면 그 확률은 75%로 크게 증가한다(이인재 등, 2008). 현재 영국 아동 11세 기준으로 15%의 여아, 19%의 남아가 비만인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아동 비만율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4) 중국

최근 중국 위생부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질병통제센터에서 작성한 ‘중국 아동청소년 간식소비가이드라인’을 공개, 아동이 즐겨먹는 간식을 ‘자주 먹어도 되는’, ‘적당하게 먹어야 하는’, ‘먹지 말아야 하는’ 등의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소비가이드라인은 간식을 하루 3끼 식사시간외에 먹는 각종 소량의 음식물 또는 음료수(물은 포함하지 않음)로 규정했다. <간식소비가이드라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3~5세 아동’, ‘6~12세 아동’, ‘13~17세 청소년’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간식을 합리적인 식사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아동 특징별로 구체적인 간식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영양전문가는 간식용으로 우유, 과일, 견과류 등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6~12세 아동은 매일 간식을 3회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간식을 먹는 시간이 식사시간과 너무 가까워도 건강에 불리하며 놀음을 늘면서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13~17세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에 유익한 간식을 선택 및 구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매일 간식을 너무 자주 먹어서도 건강에 불리하다고 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초등 교육과정 전 학년에 걸쳐 건강 식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먼저 건강에 대한 개념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태도를 개발하며, 끝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정원, 2006).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건강 식생활 교육이 연계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한 단원만

할애되어 있는 우리나라 초등 식생활 교육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시기에 올바른 식사에 대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함께 점차적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정원, 2006).

또한 교실 수업뿐 아니라 학교급식 및 매점에서의 구매 등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하루 한 끼의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식생활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건강증진국(Health Promotion Board)은 교육부와 함께 ‘건강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때 학교급식에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보면, 100 mL당 설탕 함량이 8g 이상인 음료는 제공하지 말 것, 튀긴 음식과 저장육(햄, 핫도그)은 일주일에 하루만 제공할 것, 르막 요리(Lemak dish)에서 코코넛 밀크의 일부를 우유로 대체할 것, 음식을 만들 때 닭고기는 껍질이 없는 것, 육류는 살코기를 사용할 것, 국수나 쌀밥 요리에는 권장량만큼의 채소를 같이 제공할 것, 매일 최소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신선한 과일을 제공할 것, 그레이비/소스류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말 것 등 철저한 비만 예방 및 건강 식생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아동소비자를 위한 안전교육의 지도 방안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아동소비자안전교육의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안전교육계획인 필요성과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해 교사의 인식정도와 학부모의 관심 모두 매우 높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이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일상생활 병행하여 수립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또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둘째, 안전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안전교육은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학부모의 외부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료나 시간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교재교구의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연수 및 안전교육 담당전문가의 초청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안전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문제가 되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지도 부족으로 인해 재량활동 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피훈련 등의 현장지도의 실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나 교재의 활용정도가 미약하다.

넷째, 아동소비자 교육 내용이 실제 소비생활과 연계되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체계적인 저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이 소비자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생활에 있어서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자 교육 내용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론교육보다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소비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교사가 전문적인 소비자교육 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활용할 교재 또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수준 높은 안전교육 담당 교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안전교육 전공학과와 과목을 개설하여 안전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연수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소비자교육과 연계가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소비자안전교육의 인식 개선방안에는 우선 안전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아동의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므로, 모든 교육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지도가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 소비자교육은 아동이 지식의 전달에 의하여 안전의 생활화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안전교육의 제도적 장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아동안전교육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현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연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안전 계획에는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생활에 있어서 안전규칙, 재량활동에서의 안전지도와 같은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에 관한 교내 연수, 학부모 대상의 교내 연수,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같은 안전조직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교육대학교의 교과 과정에도 학교 안전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재화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관 관리자는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주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재화의 사용과 구매에 치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재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숙지를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높여야한다. 안전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가치 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기관에서만 강조한다면 그 완성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안전체험을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다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안전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우선 안전교육 내용을 재편성해야 한다. 특정교과목만으로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부족하다. 현행처럼 전교과목마다 독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과정의 개선책으로 안전교육내용을 통합교육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생활에 대한 지도 시간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지도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도내용을 선정하여 내면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별 안전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학년별 안전교육 목표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당국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로 보급하고, 또 개발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각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각 학급에 지원해줌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아동유괴예방인형극, 찾아가는 안전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체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실

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실천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안전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기창(2006). 아동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 김수진(2005).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5.
- 김영옥(1999). 아동소비자 교육내용의 구성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원수(1981). 광고학개론. 경운사. 291.
- 김정균(1989). 영양교육 64-75. 지구문화사
- 김정원(2006). 실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선진국 생활과학 커리큘럼 비교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1), 1-21.
- 김정원(2006). 아동 건강을 위한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 어린이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 안전한 식품 토론회 자료집.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혜선(2009).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16.
- 류 경(2005).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민정윤(2002). 초등학생의 tv시청경향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15.
- 박영선(2007). 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박영선의원실 정책보고서.
- 백옥선(2007). 아동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제도적 연구. 중앙대대학원.
- 송순영(1993). 도시하층계급의 구조와 계급의식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송순영(2001). 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소비자 교육에 대한 기대 방향. 한국 가정교육학회. 47.
- 안홍석, 박진경, 이동환, 백인경, 이종호, 이양자 (1994). 일부 비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영양학적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7(1), 79-89.
- 윤주한, 김시권(2006). 국내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와 발전방안. 조선대 경영경

- 제연구소. 1-28.
- 이영미(2006). 어린이의 먹거리 현실과 영양문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1(6),819-835.
- 이인재, 김호성, 신항균, 김정원, 김남준, 서성희, 이민주, 이은주(2008). 현대인이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 이재용(2010).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5.
- 이종용(2006). 쓰레기를 먹었다-윤리적 도발사고, 불량 만두 사건, 기업윤리 연구 12집. 113-122.
- 이지연(2006). 프리틴 세대의 화장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 이창수(2007). 초등사회과 소비자교육의 실태 분석 및 적용.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 이혜원(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200집. 집문당, 75.
- 인대진(1999). 초등학교 아동의 消費行態와 그 影響 要因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기혜(2007). 어린이 먹거리 안전평가제도 기반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정은미(2006).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경영 실천전략. 원광대학교.
- 한국소비자원(2006).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2, 36-37.
- 한혜영(1997). 급식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아동의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잔식량에 미치는 영향.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omasita M. Chandler & Barbara M. Heinzerling (1999).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Market Place. Twenty-Five Years of Academic

Research. Pierian Press,IV.

McNeal, James. U. (1992). 키즈마케팅. 세종서적.

ABSTRACT

A study on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child Consumer Safety Information and Education

Lee, Yu kyoung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child consumer education by analyze the present child consumer safety education conditions in schools and the societies.

The child scope according to the law is different therefore this research decided the scope of child from full 6 year-old until 12 year-old by consider physical and emotional conditions. The elementary students of this time grasped the present condition of child consumer safety education with the object.

Korea still has a high level of child mortality rate which caused by the accident 8.3 people out of 100,000 population even though they established 'child safe synthetic countermeasures ' in 2003 June. (OECD average is 7.3 people out of 100,000 population.) Also the disparity distribution of this damage danger appears between the area , nation, domestic clearly, the population group and the economic imbalan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education of child consumer safety is emphasized.

child consumer safety information could be provided from following sites: '어린이 안전넷', '어린이 안전교육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 안전학교'. These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 not only safety education information but also execute the education that child could experience a actual circumstance. In spite of the benefits they are indicates with problems that they only provide information to only the person whom does in necessity and the child consumer safety education systematic is insufficient.

The main subject of child consumer education comes to divide with 7 contents: (1) decision-making process (2) consumer information (3) consuming (4) financial officer (5) value selection (6) consumer civil consciousness (7)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uming and presents 9 effective instructional methods with child consumer safe교육 : (1) mass media application method (2) computer application method (3) actual object application method (4) experiment actual training method (5) investigation technique application method (6) case study (7) game (8) role playing and simulation (9) learning by observation and area activity participation.

The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by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hild consumer education which accomp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re as follows.

1. There should be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child consumer safety education and the actual consumer affair.

2. Consumer safety educational program must be developed not only for child but also for the parents and the teachers.

3. The recognition chan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necessary about child consumer safety education.

4. The development program for teaching child and professor - learning program is necessary.

5. child consumer safety education should rais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consumer education contents for developing consumer ability of child consumer could be composed though these suggestions, and the related-research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consumer education of consumer association should be done.